

3월의 계란전망

강재명
본회 지도조사부 과장

“중순이후 소비회복으로 소폭 상승 예상”

지난 2월 계란값은 소비추세에 따라 약세권과 강세가 번갈아 나타면서 고시시세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한달 내내 끌어왔다. 안정된 계란시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입추에 대한 열기로 예년에 비해 조금 이른감은 들지만 채란업계의 상황으로 미루어 향후 계란시장의 안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추측으로 입추를 서두르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입추열기의 진로에 따라 난가의 운영도 좌우될 것으로 보여 가급적 열기가 시들어 들기를 기대할 뿐이다.

물론 계란소비가 최근 몇년간 위축현상을 보였던 것을 보면 생산량을 늘려 국민의 계란소비량도 배가시켜야 될 것으로 여겨져 생산비를 낮추어 값싼 계란을 공급하는 역할도 병행해 나가야 되겠다.

□ '89년도 가을입추 이후의 입식패턴을 보면 가을입추 시즌인 10월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1월 들면서 입추열기가 살아나 지금까지 이어졌다. 실제 병아리생산 측면을 보더라도 예년의 경우 11월이후 명년 1월까지 계속 감소추세에서 2월이후 회복되는 경향에서 작년도는 거의 정반대 현상인 11월을 하한점으로 해서 12월, 금년 1월까지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고, 앞으로 봄입추 시즌이 끝나는 4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란용병아리값의 회복과 더불어 수요증가로 각 부화장마다 생산에 적극성을 띠고 있어 작년도 PS 입식수수로 보아 생산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3월 이후 난가는 개학과 더불어 소비증가가 예상되고 생산 또한 작년 가을추가 가담하는 시기여서 어느정도 수요공급 균형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 중순이후 다소 회복세도 예상되지만 최근의 계란값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환우로 인한 물량감소가 예년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여 다소 장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큰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병아리값 또한 본격적인 입추시즌을 맞아 현재의 시세인 600원대를 전후한 가격이 지속될 것 같다.

- 믿을 수 있는 중추 수시 분양중 -

상 경 농 장

전화: (0461) 741-6080, 6952

※ 종계 및 실용계 병아리 입식수수

(단위: 천수)

구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총 계	88	52.0	21.5	16.1	27.9	65.6	38.4	8.3	41.9	2.9	24.0	49.4	55.6	403.6
	89	84.9	40.1	23.5	41.6	56.1	28.4	24.0	14.8	67.5	45.3	40.6	33.2	499.9
	90	25.8												
실용계	88	1,742	2,205	2,428	2,365	1,790	1,283	1,335	1,420	1,695	1,743	1,402	1,185	20,593
	89	1,355	2,569	2,683	2,562	2,352	1,925	2,237	2,197	1,959	1,806	1,904	25,969	
	90	1,970												

그림 1. 대란고사가격(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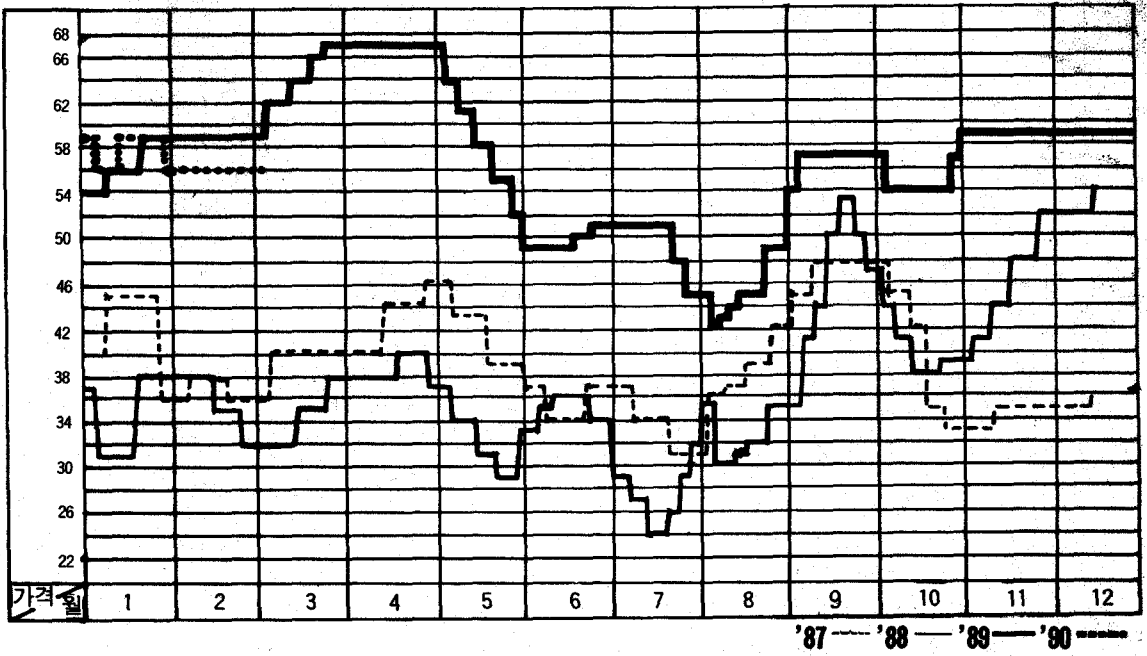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